

홍수피해로 고통과 슬픔에 잠긴 태국성도들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태국선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주시는 후원자님께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우기가 끝나갈 무렵인 9월에 방콕과 주변도시가 홍수로 말미암아 마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방콕공항조차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여 수천개의 여행 가방과 물류가 그대로 방치되고, 여행객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홍수가 심한 지역은 일주일째 집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이며, 대형몰은 식료품이 바닥이 나서 구호식량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금번 홍수로 감전과 물에 휩쓸려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2일간 모든 학교와 기관, 직장등 공식 휴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있는 지역은 금번에는 홍수피해가 없었습니다. 단지 발목까지만 물에 잠겼을 뿐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은 물이 없어도 우리 교회는 지대가 낮아서 항상 신발을 벗고 다닐 정도로 물이 항상 고였었는데 올해는 큰 피해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가정은 심각한 홍수피해가 났습니다. 가재도구가 물에 잠겨 사용을 못하고 심지어 몇몇 성도들은 교회와 다른 성도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홍수피해를 입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도 힘들고 어렵지만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홍수피해로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태국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076-21-0597-108(국민은행, 박영성)

* “홍수” 라고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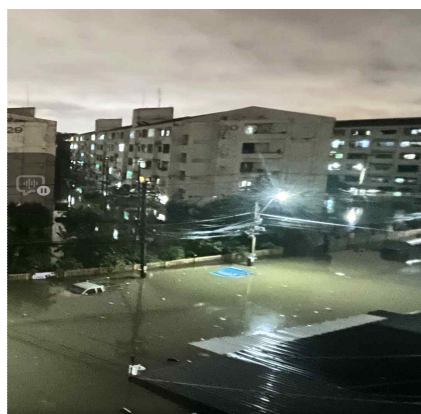
샬롬.



홍수로 인하여 성도의 가정과 교회 및 도로가 물에 잠김 모습



공항에 묶여있는 가방들



교회앞 아파트의 모습